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 인터뷰

“회계는 육성해야 할 산업... 고품질 감사로 입증 할 것”

④ 김 영 식 삼일회계법인대표

40년 현장 회계사, 실무경험 풍부
감사비용, 기업에 가치있는 투자
“회원사·회원 목소리 대변 할 것”

오는 17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다. 회계개혁 마무리와 상생 생태계 조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이다. 회계업계와 회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누가 실제로 공약을 잘 실행할 수 있을지다.

김영식(64)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한공회 차기 회장 후보 가운데 강력한 실행력으로 회계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40년 현장 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넓다.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로서 조직 운영 역량도 이미 검증됐다는 평가다.

김대표는 10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의 인터뷰를 통해 “회계개혁의 큰 틀은 마련됐지만 기업, 규제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안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표준감사시간제도 정착과 주기적·직권지정제도 확대 강화 등

김영식 삼일회계법인대표 학력·경력

- 인천 제물포고 졸업
- 고려대 경영대학 졸업
- 국민대 회계정보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 PwC 독일 Frankfurt Office 근무
- 한공회 홍보이사
- 삼일회계법인 세무, 감사부문 대표
- 한공회 대외전략위원회 위원장
-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부회장
- 현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CEO

주요 공약

- 신외감법의 안정화 및 회계 개혁의 성공적 마무리
- 미래를 위한 상생 발전 플랫폼 구축 투자
- 최근 증원된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의 축소
- 과도한 형사제재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 개선



회계 개혁의 완성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틀도 마련할 생각이다. 고객인 기업과의 상생은 물론 회원사, 규제당국과의 상생이 모두 포함된다.

김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면 가장 먼저 기업을 찾아갈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진과 투자자들에게 감사 비용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가치를 위한 투자임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그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회계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더 과감한 인적, 물적 투자를 한다면 회계분야에 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표는 규제당국과의 상생으로는 “회계산업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육성해야 할 산업임을 알리고, 회원사와 회원들은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로 그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회장 직속으로 ‘상생발전 협의회’를 설치해 상생공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중소기업이나 지방 회원을 위한 특화 시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감사기준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다.

김대표는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은 줄여야 한다고 본다.

회계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회계사 선발인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대표는 비영리 공익법인 감사공영제 논의에 대해서는 “삼일회계법인은 일찌감치 공익법인들이야말로 투명한 회계를 통해 기부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 삼일미래재단을 설립해 12년째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세무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우선 공익법인 스스로가 외부감사를 적극적으로 받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공회 차원에서는 전문성 있는 중소기업법인이나 개인 감사반이 공익법인 감사 분야를 특화하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퇴임을 앞둔거나 현역에서 물러난 실버 회계사의 재능 기부, 필요한 회계 매뉴얼 등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익법인을 하나로 모아주는 플랫폼 같은 것이 마련된다면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대표는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은 공인회계사 직업의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체득한 사람이어야 하듯이 2만2000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며 “회원사와 회원들의 목소리를 사심 없이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포스트 코로나시대, 그린뉴딜 강화로 대응”

기후위기 극복·탄소 제로시대 그린뉴딜 토론회

조명래 환경부장관
“경제·기후위기, 동시에 극복해야”

제레미 리프킨
“기후변화로 더 많은 팬데믹 목격”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에 대비해 그린뉴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 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정책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포함되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뜻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과 관련한 합동 서면 보고를 받고, 검토한 끝에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그린 뉴딜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결국 내달 중 그린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종합 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이전과 분명 다를 것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난 극복은 경제위기와 함께, 더욱 근본적인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전략이 돼야 한

다”며 “7월에 예정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과, 파리협정에 따라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제2차 P4G 정상회의 등과 연계해 보다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비전과 대안을 계속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레미 리프킨은 화상을 통한 기조연설에서 “2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한국과 모든 국가는 탄소 기반 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걸 해내지 못하면, 즉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지 못하면 기후 재앙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팬데믹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한동안 자유를 누리다가 다시 새 바이러스가 공격해 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유진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산업 경제 구조 혁신에 탈탄소 산업 경제 제도 혁신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며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은 반영돼 있지만, 그린 뉴딜 관련 제도 개선과제는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기후 위기의 시급성과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국내 육계농장에서 계열업체에 출하일자를 알려주기 위해 일부 닭의 무게를 재 전체 닭 무리의 평균 체중을 예측해왔지만(왼쪽), 앞으로는 육계 체중 예측 기술을 통해 카메라 영상으로 관측한 육계 크기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닭 무리의 평균 체중을 예측(오른쪽)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

영상으로 육계 체중 예측... 年 96억 효과

농촌진흥청-LG이노텍
‘육계 체중 예측 기술’ 개발
오차 수준 20.3g 내외 기록

#. 국내 육계농장에서는 출하시기가 다가오면 일부 닭의 무게를 재서 전체 계군(닭의 무리)의 평균 체중을 예측하고, 출하일자를 계열업체에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전체 닭의 3% 정도를 측정할 권하나 농장마다 적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를 일일이 측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육계 농장에서 일일이 닭의 무게를 재는 수고를 덜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주)LG이노텍과 공동 연구로 육계(고기용 닭)의 실시간 영상 이미지를 활용해 육계의 체중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육계농장에서는 출하시기에 많은 노동력을 들여 육계의 무게를 측정하지만, 실제 출하체중과는 차이가 발생해

농가와 계열업체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육계농가와 계열업체간의 표준계약서에는 출하체중의 오차범위(±50g)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명시돼 있다.

이번에 개발한 ‘육계 체중 예측 기술’은 카메라 영상으로 관측한 육계의 크기(면적, pixel)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계군의 평균 체중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진은 육계 사육 영상 빅데이터를 분석해 총 5만5974건의 일령·체중별 이미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육계 실측 평균 체중 1.6kg을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적용할 경우, 예측 평균 체중의 오차 수준은 20.3g 내외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농진청은 “육계 체중 예측 기술을 국내 육계농장(무창계사)에 적용할 경우 출하체중의 오차범위(±50g)에 따른 추가 수익과 손해를 고려했을 때 연간 9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용수 기자 hys@